

청소년 죽음준비교육을 위한 기독교상담적 접근

한 숙 자* 박 미 하**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죽음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죽음준비교육내용과 현황, 성경적 관점에서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청소년 죽음준비교육의 기독교상담적 접근을 위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죽음준비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음준비교육대상이 주로 청소년이라는 점이며 실시기관이 학교로서 정규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죽음교육의 내용은 첫째, 죽음이해를 바탕으로 가치있는 삶에 대한 교육, 둘째, 사별로 인한 상실 극복방법, 셋째,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독교상담 입장에서 청소년 죽음준비교육의 목표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회복시키는 것에 두어야 한다. 청소년 죽음준비교육을 위해 기독교상담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생활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자기 성찰적 삶, 기독교적인 죽음 이해, 죽어가는 과정을 포함한 죽음관련 정보의 제공, 죽음에 대한 대처능력,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 불안이나 공포 등의 감정변화, 비탄에 잠긴 사람들을 돕는 법, 안락사, 자살 등 사회적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 등이다.

중심단어 : 청소년 죽음준비교육, 기독교상담, 개인적 우화, 죽음이해, 청소년 자살예방

• 논문 투고일: 2009년 3월 26일
• 게재 확정일: 2009년 5월 15일

• 논문 수정일: 2009년 4월 22일

* 한영신학대학교

** 한영신학대학교

I. 여는 글

솔로몬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전도서 7:2) 라고 말하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전도서7:4) 하였다. 이와같이 죽음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유한성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만큼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준다. 따라서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자세에는 큰 차이가 있다. 죽음에 대한 의식은 삶과 죽음이라는 긴장 속에서 현재의 삶에 더욱 충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줌으로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특별히 청소년기는 이 시기 특유의 자신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개인적 우화의 경향성때문에, 자칫하면 삶을 낭비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이다. 또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심리사회적인 위기를 경험하는데, 이 위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발견 뿐 만 아니라 자신이 존재하는데서 오는 삶의 의미를 인식할 때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탐색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청소년은 정체 혼란에 빠지기 쉬우며, 무실체감(non-entity)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갈등, 좌절, 비행 등으로 이탈하기 쉽다.

이렇듯 청소년기가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교육은 입시에 집중된 획일화된 교육이다. 현재의 교육은 모든 세대들로 하여금 삶의 수단을 준비하는 경쟁과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 살까하는 관심사에 몰두하게 한다. 어떤 존재, 어떤 인간, 어떤 나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의미의 삶을 살 것인가를 성찰하고 추구하도록 가르치기 보다는 현세적인 삶에 몰두하도록 가르친다.¹⁾ 이러한 교육 구조 속에서 청소년

1) 김인회, “한국의 학교: 실상과 개혁”, 한국교육학회, 「교육학 연구」 제33권 4호(1995): 1-20.

들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패배와 절망감으로 각종 비행으로 삶을 낭비하거나 자살을 최후의 도피수단으로 삼아 삶을 끝마치고 있다. 이재영(2004)²⁾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의 충동을 느껴 보았다'라는 청소년이 210명 중 92명(42.4%)이었고, '생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에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청소년이 54명(59.2%)이었다. 2008년 청소년 통계³⁾에서도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성적을 포함한 공부(56.5%)였으며, 청소년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이었다.

청소년들은 또 직접적인 죽음 외에도 성적 부진으로 인한 좌절, 실연, 친구와의 이별, 부모와의 갈등, 사회제도의 모순 등을 통해 '작은 죽음'⁴⁾을 경험한다⁵⁾. 따라서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작은 죽음 속에서 자기 고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거나 또는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은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유럽 등의 외국에서는 이미 공교육 안에서 죽음준비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공립 초등, 중등학교의 약 11%가 죽음에 대한 강좌나 단원을, 17%가 슬픔이나 애도에 개입하거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5%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Wass, Miller & Thornton, 1990).⁶⁾ 가까운 일본에서도 십대범죄와 자살의 증가로 정부가 삶

2) 이재영,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과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 연구」 19(2004): 39-56.

3) 2008년 청소년 통계, 통계청 <http://www.nso.go.kr/>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4) 히구치 가츠히코는 '큰 죽음'이란 인생의 종결로서의 죽음을 말하고, '작은 죽음'이란 의식의 죽음으로 의식 상태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의식 상태가 사라짐은 곧 새로운 의식의 생성을 의미함으로 작은 죽음은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죽음으로 해석된다. 히구치 기치히코, 『죽음에의 대비교육』 이원호 역 (서울: 문음사), 37-38.

5) 임진옥, "죽음준비 상담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2008), 107.

6) H. S. Wass, D. Miller, & G. Thornton. "Death Education and Grief: Suicide Intervention in the Public Schools," *Death Studies* 14(1990): 253-268.

과 죽음교육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2005년부터 전국의 학교에서 시험 운영하고 있다(Becker, 2004).⁷⁾ 우리나라도 성인 범죄 못지 않은 십대 범죄와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대두 되고 있어 청소년들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죽음준비교육은 죽음의 의미 이해와 올바른 죽음인식을 갖게 해 줄 뿐 아니라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받게 됨으로써 현재 삶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더불어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에 의하면, 신앙이 없는 청소년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죽음에 대한 욕망이 강했으며, 평소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청소년들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살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신앙으로 영혼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삶의 의욕이 강할 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적었으며, 자살을 무책임한 행동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보았다. 특히 기독교를 신앙하는 청소년들이 타 종교에 비하여 생활의욕이 높게 나타났다.⁸⁾ 이러한 결과는 영혼과 내세관에 관련된 종교교육이 청소년들의 삶의 의욕을 불어넣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종교에 쉽게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이 성경적 관점에서의 바른 죽음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치있는 삶을 설계해 나가도록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 청소년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죽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와 죽음준비교육에 대해 살

7) C. Becker, "Death Education and Religion in Schools and Modern Society,"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 연구」 19(2004): 3-22.

8) 강성경, "청소년 죽음관 조사연구: 종교와 죽음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02), 117.

펴보고, 현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죽음준비교육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죽음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

1) 생애발달주기 관점에 따른 청소년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인간은 연령과 인지의 발달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단계적으로 변화한다. 3세 이전의 영아들은 자아중심적 사고로 인해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며(Kastenbaum & Aisenberg, 1972),⁹⁾ 죽음에 대한 인식은 3세 정도에 생기기 시작한다고 본다. 5세경이 되면 죽음을 미성숙하게 이해하게 되는데, 죽음을 잠을 자거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일시적이고 회복 가능한 상태로 생각한다.¹⁰⁾ 6-7세가 된 아동은 죽음을 최종적이고 보편적이며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체 손상이나 불구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 죄의식 및 외로움을 느낀다.¹¹⁾ 그리고 9세가 되면, 아동은 죽음을 최종적이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기능의 단절로 인식하게 된다. 자기 자신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신체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와같이 아동들도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인지는 결여되어 있지만, 자기들 방식대로 죽음을 인식한다

9) R. Kastenbaum, & R. Aisenberg. *The Psychology of Death* (New York: Springer, 1972).

10) D. R. Crase, & D. Crase. "Helping Children Understand Death," *Young Children* 32(1976): 21-25.

11) 남현숙, "성인의 죽음에 관한 태도와 죽음준비교육 요구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1999), 21.

(Kastenbaum, 1967).¹²⁾ 아동들은 친구나 가족 그리고 동식물이 사는 자연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TV, 노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죽음의 실재를 경험한다.¹³⁾

청소년기는 인지발달의 향상으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 지면서 죽음의 특징이 무엇이고 죽음 이후의 존재는 무엇인가와 같이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며 어떤 청소년들은 종교적 믿음보다 더 깊고 추상적인 수준으로 종교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¹⁴⁾ 또 죽음에 대한 명확한 관념을 가지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생겨나고 죽음에 직면하여 분리불안과 단절의 공포, 우정의 상실과 새로 획득한 정체성을 상실하는 공포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해 보다 객관적인 죽음관을 갖게는 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죽어가는 과정을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¹⁵⁾

인지적 특성 외에도 청소년들은 이 시기 특유의 '개인적 우화의 경향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개인적 우화의 경향성'이란 자신은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중심적 사고의 특성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과 죽음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시험성적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것도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이 당할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이나 위험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12) R. Kastenbaum. "The Child's Understanding of Death: How Does It Develop" in *Explaining Death to Children*, ed., E. Grollman (Boston: Beacon Press, 1967), 89-110.

13) 정경숙, "발달수준에 따른 아동의 죽음에 대한 개념과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연구", 대구산업정보대학, 「대구산업정보대학 논문집」 제12권 1호 (1998): 267-293.

14) 손승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불안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1998), 12.

15) 이영화, "죽음준비교육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98), 23.

죽음에 관해 자아중심적인 환상을 갖게 된다. 죽음에 직면하고 자살시도를 하더라도 자신은 마지막 순간에 구조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개인적 우화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또 청소년은 정서적 특성상 죽음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관념도 불안정하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보다는 죽음을 아름다운 것 또는 영원한 사랑이나 낭만적인 것으로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인생의 의미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해서¹⁶⁾ 자살까지도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감 또는 존재 의미나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차라리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청소년은 '모호함과 긴장감'이라는 청소년 시기 특유의 특성 때문에 왜곡된 죽음관을 형성하여 생명은 물론 소중한 삶의 시간들까지도 파괴할 위험이 있다.

성인초기는 청소년에 비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안정적이지만, 자신에게 죽음의 가능성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극도로 좌절하여 일관적이지 않은 감정적 반응을 나타낸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지각은 성인후기가 되어야 가능해진다. 이 시기가 되면 죽음은 현실감을 띠게 되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내면에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해서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성인들은 자신의 과거를 재평가하고 가족 및 주변인들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등 성숙한 죽음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

노년기는 인간발달의 마지막 단계로 죽음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불안이 크다. 노인들은 죽음을 부정하거나 또는 모

16) L. D. Noppe, & I. C. Nope. "Ambiguity in Adolescent Understandings of Death," in *Handbook of Adolescent Death and Bereavement*, eds., C. A. Corr & D. E. Balk (New York: Springer, 1996), 25-41.

든 사람이 결국은 죽기 때문에 가장 평등한 것,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2) 청소년이 인식하는 죽음에 관한 유형

김미령(2007)¹⁷⁾은 청소년이 인식하는 죽음에 관한 유형을 5개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 1유형은 '고통스러운 죽음 거부형'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고통 없이 죽기를 희망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제 2유형은 '소극적 죽음 애착형'이다. 현재의 삶이 힘들어서 자살충동을 느낄 만큼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자살 결심의 원인을 주변 탓으로 돌리는 형이다. 이 유형의 경우는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지 않더라도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이 위험한 결과를 촉발시킬 수 있다. 이 유형의 청소년들에게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 3유형은 '편안한 죽음 추구형'으로 현재 삶에 충실하면서 장기를 기증하고 싶어하며, 안락사를 원하고,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현실에 충실한 것 같지만 달리 보면 삶에 대한 애착이 낮은 것으로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보다 더 가치있는 삶을 위해 품위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 4유형은 '긍정적 사후세계 인정형'이다. 운명을 믿으며 열심히 살다가 사후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유형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으며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경우는 죽음에 대해 터놓고 얘기할 수

17) 김미령, "청소년이 인식하는 죽음에 관한 주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2007), 49-50.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본인의 가치관을 더 확고히 하고 현실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 5유형은 ‘죽음에 대한 정체성 혼란형’이다. 지금 상황이 힘들어 자살 충동을 느끼고 현실에 대한 도피로 자살을 생각하는 아직 죽음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유형이다. 에릭슨이 제시한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정체성 혼란과 관련이 있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주위환경에 의해 자살 충동을 느껴 실천에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자살과 같은 위험을 초래하거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죽음준비교육은 소극적 의미에서 생명을 존중하게 하여 자살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의미에서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하는 교육이므로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꼭 필요하다.

3) 청소년의 죽음불안경험에 따른 죽음불안

죽음불안이란 인지적 발달에 따라 죽음이란 것이 원상회복 될 수 없는 것이며,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두려움을 말한다. 발달단계에 따라 죽음불안은 차이가 있지만,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다루어 주어야 할 죽음불안의 형태 중의 하나가 죽음경험에 따른 죽음불안이다. 죽음경험이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죽음과 관련된 경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죽음경험에 따른 죽음불안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상실, 즉 부모나 형제, 중요한 타인과의 사별을 통해 온다. 죽음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처럼 사별 경험 또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사별경험을 한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사회적, 생물학적인 변화 때문에 상실감에 대해 더 취약하다¹⁸⁾

18) 박효실, “부모 사별 후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처자원과 가족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2), 25.

사별을 통해 일어난 슬픔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신체적인 이상 반응 뿐만 아니라 충동적 행동, 물질 남용, 감각 변화, 자아기능 변화, 부적응, 손상된 대인관계, 성적 하락, 생활방식의 변화 등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¹⁹⁾ 외국의 연구에서도 갑작스런 사별은 정신적, 육체적인 위험요인이 생김으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상성(traumatic)이 보인다고 하였다.²⁰⁾ 심리적 변화가 큰 사춘기를 통과하는 청소년들이 사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충격으로 발생하는 일탈 행동들이 일생동안 부적응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고,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이와같이 사별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2.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이해

1) 죽음준비교육의 정의

죽음준비교육이란 죽음, 죽음 과정, 사별과 관련된 모든 측면의 교육을 포함한 통합적인 교육으로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현상을 다루는 형식적, 제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도이며, 죽음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고, 어떤 태도를 조장하는 시도, 즉 죽음이 삶이라는 사실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Warren, 1989).²¹⁾

Deeken(2003)은 죽음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의 유한성을 자각하게 함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할 기회를 갖게 하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죽음준비교육은 단순히 죽음 그 자체

19) 노유자, "사별 간호", 대한간호협회, 「대한 간호」 제34권 2호 (1995):18-26.

20) 신연순, "부/모 사별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정서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대학원, 2007), 25-26.

21) W. G. Warren, *Death Education and Research: Critical Perspectives* (New York: Haworth, 1989).

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삶의 연장선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현재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인식하고 온전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²²⁾

2) 죽음준비교육의 내용 및 기대효과

장신화(2009)²³⁾의 성인의 죽음준비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성인들은 죽음의 의미와 삶의 가치에 관한 내용과 생의 회고나 남아 있는 여생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장 필요로 하였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 사별한 사람들의 슬픔 극복과 치유방법에 대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장례 정보로서 장기기증, 시신기증 및 유산 상속과 유언 작성에 대한 법률적 상식도 교육내용에 포함되길 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에서는 죽음교육의 대상이 주로 청소년이다.²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교육은 상실로 인한 슬픔, 자살의 충동, 죽음에 대한 불안 등 청소년기에 죽음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문제들에 접근하여 올바른 죽음관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 죽음 교육의 창시자인 Morgan은 세 가지 차원에서 죽음교육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자살예방교육이며,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 상실감을 극복하는 교육으로서의 죽음교육, 셋째는 사별을 경험하기 전에 언젠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죽는다는 현실을 깨닫는 교육으로서의 죽음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²⁵⁾

현재 청소년 죽음준비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도 넓은 의미에서 자살 예방과 유가족, 죽음에 대한 이해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

22) 김은희,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대학원, 2006), 7.

23) 장신화, “성인의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2009).

24) 본 논문 뒷 부분에 나오는 죽음준비교육의 외국 현황을 분석해 보면, 미국, 독일, 일본, 호주, 영국의 주 교육대상이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25) 김재영, “캐나다 교육체제에서 죽음교육의 위치”, 한국캐나다학회, 『캐나다 논총』 8(2002): 113-133.

국은 사별 경험을 한 청소년들 대상의 비통교육에서 죽음 및 자살 예방 교육으로 그 내용이 확대되었다.

또 국내에서 이루어진 유현진(2007)²⁶⁾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가치있게 살아가기 위한 내용, 죽음에 대한 불안 감소를 위한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 밖에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는 내용,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 죽음에 직면한 사람을 돕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실시는 고등학교 시기가 가장 좋다고 하였고, 그 다음이 중학교로 나타났다. 임진옥(2007)²⁷⁾은 위의 유현진의 연구를 토대로 청소년을 위한 죽음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죽음의 의미, 죽음의 과정, 죽어감의 또 다른 형태, 삶의 의미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근거로 성인과 청소년 모두가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을 볼 때, 죽음준비교육은 죽음 자체에 대한 교육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삶을 위한 교육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외국의 사례를 포함해서 죽음준비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가치있는 삶에 대한 교육, 둘째는 사별로 인해 발생하는 상실을 극복하는 방법, 셋째는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죽음준비교육은 죽음에 대한 다양한 종교, 철학, 문화, 생활경험 등에 따른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두루 제공하여 올바른 죽음관을 먼저 형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또 죽음준비교육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단순히 제거하거나 부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각 연령대상에 따른 죽음 불안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철학적 성찰과 교육을 통해서 의식의 변화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죽음에

26) 유현진, "고등학생의 죽음태도 및 학교에서의 죽음준비교육"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2007), 60.

27) 임진옥, "죽음준비 상담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2007), 120.

대한 잘못된 인식은 자살과 같은 불행한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죽음관으로의 의식 변화가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죽음대비교육의 필요성을 연구한 안춘옥(2001)²⁸⁾은 죽음준비교육에 참여한 경험자는 죽음의 정의, 내세관, 두려움, 죽음에 직면하는 자세, 사후 시신에 대한 자세 등 모든 부분에서 죽음준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자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숙남 등(2005)²⁹⁾에 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죽음준비교육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효과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근거로 한 생의 의미를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또 죽음준비교육을 통한 삶의 의미 찾기는 Bowie(2000)³⁰⁾의 연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이 학생의 영적, 도덕적, 문화적, 정신적 및 신체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여러 연구(신숙자, 2004; 조혜진, 2004; 김은희, 2007 등) 중에서도,³²⁾ 김은희(2006)³³⁾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5회기로 구성했는데, 도입단계에서는 죽음 생각하기, 탐색단계는 죽음과정과 죽음에 대한 이

28) 안춘옥, “죽음에의 대비교육 필요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대학원, 2001).

29) 김숙남 · 최순옥 · 이정지 · 신경일, “죽음교육이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22권 2호 (2005): 141-153.

30) L. Bowie, “Is there a Place for Death Education in the Primary Curriculum,” *Pastoral Care in Education* 18, no. 1 (2000): 22-27.

31) 김은희,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대학원, 2006), 7.

32) 신숙자,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죽음과 자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가톨릭대학교대학원, 2004); 조혜진, “죽음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죽음불안과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대학원, 2004).

33) 김은희,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16-35.

해로 자살, 약물 및 알코올 중독, AIDS, 낙태 등의 죽음과 관련된 현 사회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해단계에서는 죽음 간접체험, 수용단계에서 죽음 준비와 삶의 의미 찾기, 마무리단계는 삶의 목표 설정과 나의 가치 정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육 실시 후 실험군의 대학생의 학교생활, 대인관계,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죽음의 위기관리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죽음에 근접해 있는 대상 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현재 삶의 가치와 자아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현재를 좀 더 충실히 살아가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임을 제안하였다. 위의 연구는 청소년과 근접한 연령대로 발달상의 특성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서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비슷한 효과를 예측하게 해준다.

3. 죽음준비교육의 현황

죽음준비교육은 1959년 Feifel³⁴⁾이 출판한 '죽음의 의미(The Meaning of Death)라는 저서가 죽음에 관한 학술연구로 인정을 받으면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어 Kubler-Ross³⁵⁾가 '죽음과 임종에 관하여'를 발간하면서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관심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켰다.

죽음준비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으로 처음 시작된 것은 1950년대부터이며, 현재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활발하게 교육하고 있다. 현재 죽음준비교육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죽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다 잘사는 삶'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을 앞둔 노인뿐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 평생교육차원에서 폭넓게 교육을 하고 있다.각국의 죽음준비교육 현황을 분석해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죽음

34) H. Feifel, *The Meaning of Death* (New York: McGraw-Hill, 1959), 25-31.

35) E. Kubler-Ross,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1969), 5-10.

준비교육의 대상이 주로 청소년이라는 점이며, 실시기관이 학교로서 정규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삶의 의미를 재고해 볼 수 있는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70년대 서강대의 김인자 교수가 죽음교육을 교육과정으로 신설하였고, 1991년에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라는 사회교육단체가 만들어져 죽음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열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으로 2002년에는 국내 최초로 죽음준비교육 지도자 과정이 개설되고, 2005년에는 ‘한국죽음학회’도 발족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처럼 형식교육의 일환으로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죽음준비교육은 대부분 노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교기관에 의해 비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독교 종교기관에서는 안산동산교회, 광주동명교회,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가 노인을 대상으로 ‘천국준비학교’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화성결교회는 수요일예배 시에 ‘죽음 예비학교’를 전체교인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한림대학교 오진탁 교수가 2004년 생사학 연구소를 개설하여 죽음준비교육, 자살예방교육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³⁶⁾ 이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교육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2006년 서울 오산고교의 김용관 교목이 ‘죽음 이해하기’ 등의 주제로 진행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 내 정규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의 중고등학교 죽음준비교육과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은 70년대부터 죽음이라는 주제가 학교교육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공개적 논의가 시작되었고, 1969년 Robert Fullton이 미네소타대학에 설립한 ‘죽음 교육 및 연구센터’의 프로그램은 현재 초등학교 교과목까지 파급되어

36) 방수동, “기독교적 죽음교육” (석사학위논문,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2006), 86-88.

있다. 죽음교육프로그램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죽음이 발생하기 전에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에 맞이할 노화를 바르게 이해시키는 교육이다. 2단계는 죽어가는 순간을 이해시키는 교육으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훈련과 죽음에 이르는 단계에 대한 이해 및 과정의 의미를 인식시킨다. 3단계는 유가족을 위한 교육으로 개인이 친밀한 사람과의 사별 이후에도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적 유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³⁷⁾

미국의 중학교에서는 죽음과 죽어감의 교육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네소타 주립 대학의 Patrica Zalasnek에 의해 계획된 교과과정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중학교에서는 죽음준비교육이 하나의 분리된 과목이 아니라 문학, 역사, 사회, 생명과학, 보건, 종교처럼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다른 과목들 내의 소단위로서 이루어진다.³⁸⁾ 미국의 대표적인 고등학교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Robert Stevenson의 11단계로 구성된 죽음준비교육모델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고등학생들이 긍정적인 삶을 이해함으로써 죽음의 문제나 상실의 경험, 슬픔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죽음이 자신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단계별 교육내용은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지식, 개념, 태도 조사를 시작으로 죽음과 상실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이해,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사건에 대한 이해, 연령별 죽음 인식에 대한 이해, 죽음의 이유에 대한 이해, 안락사에 대한 이해,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이해, 죽음과 비통에 대한 이해, 죽음과 장례의식에 대한 이해, 자살에 대한 이해와 자살 방지이다.

2) 독일

독일은 중세부터 죽음교육이 시행되어 왔는데, 1984년 문학가들이 문학

37) 임진옥, “죽음준비 상담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2007), 85.

38) 차미영, “중·고등학교 죽음교육에 관한 연구: 제7차 교육과정 중 국어, 도덕 교과분 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07), 49.

작품 속에 나타난 '늡음과 죽음'에 대한 주제 토론이 계기가 되어 학교 수업 과목으로 죽음 준비교육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최근 10여년 동안 학교 교육 과정에 죽음 준비교육을 포함시키고 국, 공립학교에서 주에 2시간씩 종교시간을 이용하여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교육이 진행되며, 중학교에서는 윤리와 가치적 측면에서 죽음을 다룬 '죽음과 죽음의 과정(Sterben and Tod)'³⁹⁾이라는 교재를 사용한다. 그 내용은 죽음과 장의(葬儀), 청소년 자살, 인간다운 죽음(윤리적 문제), 생명의 위협, 죽음의 해석이라는 다섯 가지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다.⁴⁰⁾ 고등학교의 죽음준비교육 과정은 6개월이며, 죽음 자체보다는 삶을 준비시키려는 목적아래 대부분 4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인간의 성장, 노화, 죽음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느끼게 함으로서 학생들이 오늘의 사회가 환자, 노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한다. 2단계에서는 죽음을 주제로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 즉, 의학, 심리학, 문학, 종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죽음의 해석을 다룬다. 죽음의 해석 뒤에 Kubler-Ross의 죽음의 의미와 사후 생명,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강의한다. 제 3단계에서는 AIDS를 다루면서 에이즈 환자를 어떻게 돌보아야 할 것인지를 알아본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자살과 안락사의 문제를 통해 죽음과 임종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다룬다.

3) 영국

영국의 죽음교육은 Barbara Ward가 중고교생을 위해 출판한 '좋은 비통(Good Grief)'⁴¹⁾이라는 책을 교재로 사용한다. Ward는 매년 부모와의 사별을 통해 죽음을 경험하는 아동들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죽음 문제를 기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죽음

39) '가치와 규범'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중학생용 교과서 시리즈 중에 제9권이다.

40) 차미영, "중·고등학교 죽음교육에 관한 연구: 제7차 교육과정 중 국어, 도덕 교과분 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07), 52.

41) B. Ward. *Good Grief*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1993), 47-56.

준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녀는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 안에는 부모와 사별한 아동들이 반드시 존재하며, 그들은 상실에 따른 비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통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통과정이나 상실체험에 대한 죽음준비교육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에서의 죽음준비교육은 주로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부모로 인한 사별을 경험할 때 오는 비통함을 대비할 수 있도록 죽음으로 인한 비통과정이나 상실체험에 대해서 교육한다. 그러나 교육내용은 비통뿐만이 아니라 죽음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은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 슬픔, 상실감, 고독감 등의 체험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며, 죽음의 역사, 가족의 죽음, 자살, 이혼, 장례의 의의, 사후생명의 고찰, 비통의 과정과의 대결 등이다.

4) 호주

호주의 죽음교육은 Susan Hetzel⁴²⁾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상실과 변화'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째,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정상적인 상실 경험에 대한 가치와 지식을 습득케 하는 것이며 둘째, 상실과 슬픔의 감정을 확인하고 인식하도록 하며 셋째, 개인과 집단의 대처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넷째, 슬픔과 상실의 상황 속에서 학교사회의 반응을 지원하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5개 회기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회기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과정이며, 두 번째 회기는 죽음, 가상 대 현실로 죽음에 대해 그 집단이 경험한 것과 학생들이 죽음에 대해 배운 것을 완곡한 언어와 그림으로 회상하도록 한다. 세 번째 회기는 사고와 죽음으로 죽음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가져 온 변화를 다루어 준다. 네 번째 회기는 일반적인 상실 경험으로 다른 영역의 상실을 포함하여 죽음에 관한 초점을 넓히

42) Susan Hetzel, "Loss Change: New Directions in Death Education for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14, no. 4 (1991): 323-334.

고 어떻게 사람들은 이것들을 통해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네 번째 회기는 학교 사회에서의 지지에 관한 것으로 학교 수업이 개인적인 비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봄으로서 학교에서 어떻게 이러한 청소년들을 도울 것인지 지침 제공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5) 일본

일본은 십대 범죄와 자살의 증가로 정부에서 직접 초, 중, 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삶과 죽음교육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게이오 고등학교 '다카하시 마코토'는 1학년 학생 필수과목으로 1996년부터 죽음교육을 시작했다. 죽음교육의 목표는 삶의 희망을 주는 것으로 수업내용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나서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Alfons Deeken⁴³⁾의 비통의 과정 12단계를 다룬다. 둘째는 '암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결국 잘 죽는 방법을 배움으로서 잘 사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2005년부터는 전국의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출판업자와 대학들도 삶의 중요성과 죽음의 불가피성, 그리고 종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적합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⁴⁴⁾

4.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의미

일반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인간 존재의 본성에 의해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한다. 인간의 본질적인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만

43) Alfons Deeken. 死とどう向き合うか. 오진탁 역.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서울: 궁리출판, 2002.

44) 류현진, "고등학생의 죽음태도 및 학교에서의 죽음준비교육"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2007), 26.

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리킨다.

구약은 이러한 죽음의 기원에 관하여 알려준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범죄가 죽음을 불러왔다(창2:17, 3:19). 즉,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간이 받는 벌(罰)이다. 구약에 기초해 볼 때, 생명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이며,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구약 초기에는 대체로 죽음을 ‘생명의 유한성’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아브라함도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 게로 돌아가매”(창25:8)라고 하였고, 여호수아도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수23:14)라며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구약은 사후의 세계에서 개인적 생명이 계속된다는 인식은 하지 못했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은 일원론적인 존재로서 죽으면 “다시 되돌아 올라오지 못하는 곳”인 스올(sheol, 음부)에 간다고 생각하였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죽음을 ‘죄’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경험해야 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빛 아래서 새롭게 조망하고 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중시한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전망은 초대 교회 사도들의 신앙고백에 기초하는 것이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부활과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선포하였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순히 비참한 인간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소망하였으며,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신약에서 죽음은 더 이상 무능력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불가피한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인간에게 죽음은 극복된 것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죽음은 곧 부활이며 영생의 소망인 것이다.

5.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접근

성경적 입장에서 죽음은 단지 생명의 유한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죽음은 죄와 관련되어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의 치료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리학적 기술은 당면된 죽음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죄와 연결된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죽음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죽음준비교육에서 더 나아가 기독교적인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다.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은 복음적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게 해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 줌으로서 막연하게 인식되던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복음으로 극복하고 현실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준다. 또 죽음에 직면한 사람을 도움으로서 '나' 보다는 타인을 존중하고 돌아보며, '더불어' 사는 사람의 방식을 터득하게 해준다. 즉, 타인을 돕는 삶의 방식을 통해 삶의 가치를 높여 준다.⁴⁵⁾

따라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죽음준비교육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참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죽음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함으로서 삶을 더욱 건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⁴⁶⁾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기독교 상담자의 역할은 첫째,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돕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서 미래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래를

45) 김창하, "목회 및 선교적 차원에서의 죽음교육의 필요성 연구"(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2007), 59-60.

46) 류혜옥·정진희, "죽음의 의미와 기독교 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7권 (2004): 124-140.

포함한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한 인간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며,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⁴⁷⁾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도록 용서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게 해 줌으로서 앞으로 직면하게 될 죽음의 위기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셋째, 하나님 나라(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준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죽음을 생명의 유한성으로 인식할 때, 죽음은 위협적이고 절망적이며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러나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의 시작으로 이해될 때,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당면한 삶의 문제들에 더 적극적인 해결의 동기를 가지게 된다.⁴⁸⁾

구체적으로 기독교적 죽음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⁴⁹⁾은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생활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자기 성찰적 삶을 위한 것, 기독교적인 죽음이해, 죽어가는 과정을 포함한 죽음관련 정보의 제공, 죽음에 대한 대처 능력,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불안, 공포 등의 감정의 변화, 비탄에 잠긴 사람들을 돕는 법, 안락사, 자살, AIDS 등 사회적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 등이다.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기술을 통해 나 자신의 도움을 받는 것 뿐 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와 슬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죽음준비교육은 상담적 차원에서 지식교육 중심의 죽음준비교육과는 달라야 한다. 죽음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죽음의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정서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상담적 죽음준비교육은 이론적인 정보 제공의 교육이 아니라 '지금-여기에서'의 나의 현실적 삶과 죽음으로서 체험되어야 할 과제로서 제시되어야 한다.⁵⁰⁾

4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48) 류혜옥·정진희, "죽음의 의미와 기독교 상담", 124-140.

49) 방수동, "기독교적 죽음교육" (석사학위논문,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2006), 86-88.

50) 임진옥, "죽음준비 상담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2007), 4-5.

Ⅲ. 닫는 글

죽음에도 ‘품위 있는 죽음’이 있다. ‘품위있는 죽음’이란 곧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결국 죽음이 곧 삶의 결과물이라고 할 때,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자아 정체감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청소년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은 이 시기 특유의 특성으로 인해 죽음을 인식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비행이나 자살의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사별 경험에 따른 죽음 불안을 적절히 다루어 주지 않을 경우 사회 부적응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문제점을 예방,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죽음준비 교육이다. 죽음 준비교육은 죽음, 죽음과정, 사별과 관련된 모든 측면의 교육을 포함한 통합적인 교육으로 외국에서는 이미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학교 현장에서 정규과정에 의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죽음에 임박한 노인들로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실시기관도 종교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등 비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점점 증가하는 청소년 비행과 자살을 고려할 때, 교육적 차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이 학교 교육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발달과정과 발달위기 수준에 맞는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자신의 생명과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발달단계에 따른 적합한 교육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외국과 같이 정규과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죽음준비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성경적 입장에서 죽음을 이해할 때,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비롯된 결과물로 심리적, 교육적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성경적 죽음이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적 죽음 준비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종교 시간을 이용하여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회학교 내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지식 제공 위주의 죽음준비교육은 죽음과 관련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으므로 상담적 차원에서 죽음준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기는 그 특성상 정서적인 변화가 심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다. 추상적 사고는 발달하지만 반면, 개인적우화의 경향성으로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감정을 가진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상담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영적으로 도울 뿐 아니라 죽음에 수반되는 정서적인 문제를 다루어 줌으로써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풍요롭게 하며, 미래에 다가 올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토대로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 그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강성경. “청소년 죽음관 조사연구: 종교와 죽음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02.
- 김미령. “청소년이 인식하는 죽음에 관한 주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2007.
- 김숙남. 최순옥. 이정지. 신경일. “죽음교육이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22권 2호 (2005): 141-153.
- 김은희.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대학원, 2006.
- 김인희. “한국의 학교: 실상과 개혁”. 한국교육학회. 「교육학 연구」 제33권 4호 (1995): 1-20.
- 김재영. “캐나다 교육체제에서 죽음교육의 위치”. 한국캐나다학회. 「캐나다 논

- 충」 제8권(2002): 113-133.
- 김창하. “목회 및 선교적 차원에서의 죽음교육의 필요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 남현숙. “성인의 죽음에 관한 태도와 죽음준비교육 요구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1999.
- 노유자. “사별 간호”. 대한간호협회. 「대한 간호」 제34권 2호(1995): 18-26.
- 류현진. “고등학생의 죽음태도 및 학교에서의 죽음준비교육”.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2007.
- 류혜옥 · 정진희. “죽음의 의미와 기독교 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7권(2004): 124-140.
- 박효실. “부모 사별 후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처자원과 가족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2.
- 방수동. “기독교적 죽음교육”. 석사학위논문, 연세대연합신학대학교대학원, 2006.
- 손승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불안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1998.
- 신숙자.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죽음과 자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 학위논문, 부산가톨릭대학교대학원, 2004.
- 신연순. “부/모 사별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정서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대학원, 2007.
- 안춘옥. “죽음에의 대비교육 필요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대학원, 2001.
- 유현진. “고등학생의 죽음태도 및 학교에서의 죽음준비교육”.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2007.
- 이영화. “죽음준비교육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98.
- 이재영.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과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 연구」 제19권(2004): 39-56.
- 임진옥. “죽음준비 상담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2007.
- 장신화. “성인의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2009.
- 정경숙. “발달수준에 따른 아동의 죽음에 대한 개념과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연구”. 대구산업정보대학. 「대구산업정보대학 논문집」 제12권 1호(1998):

267-293.

- 조혜진. “죽음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죽음불안과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경상대학교대학원, 2004.
- 차미영. “중·고등학교 죽음교육에 관한 연구: 제7차 교육과정 중 국어, 도덕 교과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07.
- 히구치 기치히코. 이원호 역. 『죽음에의 대비교육』. 서울: 문음사, 2002.
- 2008년 청소년 통계. 통계청 <http://www.nso.go.kr>.
- Alfons Deeken. 死とどう向き合うか. 오진탁 역.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서울: 궁리출판, 2002.
- Becker, C. “Death Education and Religion in Schools and Modern Society.”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 연구」 제9권(2004): 3-22.
- Bowie, L. “Is There a Place for Death Education in the Primary Curriculum.” *Pastoral Care in Education* 18, no. 1 (2000): 22-27.
- Cruse, D. R., & Cruse, D. “Helping Children Understand Death.” *Young Children* 32 (1976): 21-25.
- Feifel, H. *The Meaning of Death*. New York: McGraw-Hill, 1959.
- Kastenbaum, R., & Aisenberg, R. *The Psychology of Death*. New York: Springer, 1972.
- Kastenbaum, R. “The Child’s Understanding of Death: How Does It Develop?” In *Explaining Death to Children*. ed. E. Grollman. Boston: Beacon Press, 1967.
- Kubler-Ross, E.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1969.
- Noppe, L. D., & Nope, I. C. “Ambiguity in Adolescent Understandings of Death.” In *Handbook of Adolescent Death and Bereavement*. eds. C. A. Corr & D. E. Balk. New York: Springer, 1996.
- Hetzl, Susan. “Loss Change: New Directions in Death Education for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14, no. 4 (1991): 323-334.
- Ward, B. *Good Grief*.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1993.
- Warren, W. G. *Death Education and Research: Critical Perspectives*. New York: Haworth, 1989.
- Wass, H. S., Miller, D., and Thornton, G. “Death Education and Grief: Suicide Intervention in the Public Schools.” *Death Studies* 14(1990): 253-268.

【 Abstract 】

Christian Counseling for Adolescent Death Education

Sookja Han & Miha Park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necessity of youth death education and to offer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Christian counselling to deal with the issues involved.

Overseas, death education is geared mostly towards youth and is organized by schools, which provide such courses as part of their regular curriculum. The content of their death education is as follows: first, education on valuable life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death properly, second, how to overcome the sense of loss caused by death, and third, preventive education against suicide.

From the Christian counselling point of view, the purpose of youths' death education must be focused on restoring the relationship with God, separated due to human sin, through Jesus Christ's salvation. Some of the content that Christian counselling on youths' death education should include are: a self-examinatory life that can maintain a right Christian attitude and values when living; a Christian way of understanding death; various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cess of death; strengthening the ability to deal with death; knowledge of how to help people with negative attitudes towards death; death anxiety or fear; people who are in grief; and the Christian world view on euthanasia and suicide.

Key words: youth death education, Christian counseling, personal fable, prevention of youth suicide, understanding of death